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금주의 공급망 Insight

최신 공급망 해외 이슈

【광물, 인니】 인니, 6월부터 보크사이트 수출금지

【반도체, 일본】 日, 7,23일부 첨단반도체 제조장치 등 2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

【규제, 미국·EU】 美·EU, 무역기술위원회 회의서 중국 첨단기술 투자 규제안 합의 전망

【협정, 미국·대만】 美 무역대표부(USTR), 미국·대만 무역협정 협상 타결 발표

【의약품, 유럽】 유럽 제약업계, 대만 사태 악화 시 의약품원료 수급 심각한 차질 우려

【전기차, EU】 '24년부터 EU-영국 간 전기차 교역 시 추가 관세 부가 우려

【친환경, EU】 EU 8개 회원국,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Euro 7' 반대

【반도체, 일본】 日 '실리콘 아일랜드' 규슈, TSMC 유치로 부활 움직임

【물류, 세계】 파나마 운하, 가뭄으로 인해 선박 화물량 제한

공급망 뉴스 더하기

① 핵심광물 리튬 확보를 위한 각국의 노력

공급망 돋보기

① 쉽게 이해하는 독일 공급망 실사법 FAQ

② G7 공동선언문 속 용어 '경제적 강압'과 '대응 원칙'

공급망 전문가

① EU 주요국의 배터리 기업 유치전략과 글로벌 기업의 EU 진출현황

공급망 소식통

① 인도·태평양 전략지역 비즈니스 웨비나

② 한국무역협회 지원사업 소개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 최신 공급망 해외 이슈

■ [광물, 인니] 인니, 6월부터 보크사이트 수출금지

- 인도네시아 정부는 6.10일부 자국 생산하는 보크사이트 원광(알루미늄의 원료) 수출금지를 발표했으며, 구리·납·철광석 등은 '24.5월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
- 아리핀 타스리프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23.6월부터 보크사이트를 비롯한 주요 광물들의 수출을 금지할 계획이었으나, 구리·철광석·납·아연·구리정광*에서 나오는 양극전물 등은 '24.5월까지 수출 허용키로 함
 - * 보크사이트 외 광물은 제련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수출을 조기에 금지할 경우, 일자리 및 국가 수입 감소를 우려하여 수출 허용
- 아리핀 장관은 “4개의 제련소에서 가공을 최적화하면 현재 대비 19억 달러(약 2조 5천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 * 인도네시아는 광산법을 개정해 광물 형태의 수출을 순차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제련산업을 육성하여 광물 형태보다 가격이 높은 중간재 형태로 수출하겠다는 전략

- 한편, 보크사이트 광물 생산업체들은 인도네시아 내 원광 처리 시설이 부족해 현 생산량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 수입과 일자리 모두 감소할 것을 염려

출처: 한국경제(23.05.25), 연합뉴스(23.05.25)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반도체, 일본] 日, 7.23일부 첨단반도체 제조장치 등 2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

- 5.23일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개월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7.23일부 對中 첨단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제한 실시 계획 발표
- 일본은 '외환 및 외국무역법 성령(시행령)'에 따라 무기 등 군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물품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품목은 수출 시 경제산업성 대신(장관)의 사전 승인 필요
- 이번에 추가될 수출제한 품목 23개 항목은 우호적으로 지정된 42개 국가(미국, 대만, 싱가포르, 한국 등)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한 개별적 허가 필요
- 이러한 제한적 수출허가는 중국 및 다른 특정 국가로의 수출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 추가된 품목에는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제조장비와 메모리 소자를 3차원으로 적층하는 식각장비 포함
- 中 상무부는 일본 정부의 새로운 수출규제에 단호한 반대 의사를 보였으며, 中 외교부는 “중국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

출처: 닛케이 아시아(23.05.23)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규제, 미국·EU] 美·EU, 무역기술위원회 회의서 중국 첨단기술 투자 규제안 합의 전망

- 5.30일~5.31일 미국과 EU는 스웨덴 룰레아에서 열리는 무역기술위원회(TTC)* 회의를 통해 중국 등 전략적 경쟁국에 대한 첨단기술 투자 규제방안을 합의할 방침
- *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 '21년 9월 미국과 EU가 첨단기술 표준 마련과 경쟁국 수출통제 등 국제무역 관련 협력을 위해 발족한 기구

- 동 합의문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중국의 반(反)경쟁적인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대응 노력 확대를 위해 협력 양해각서(MOC) 체결에 착수한다고 언급
- 동 취지에 따라 중국의 시장 외곽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정부 지원금을 받은 펀드를 전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협력 관계는 강화할 계획
- 6세대 이동통신(6G),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할 전망
- 반도체 부문 보조금 경쟁을 피할 수 있도록 각국의 지원책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조기 경보 메커니즘도 함께 운영할 예정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3.05.25), 한국경제(23.05.24)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 [협정, 미국·대만] 美 무역대표부(USTR), 미국·대만 무역협정 협상 타결 발표

- 5.18일(현지시간) 美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22.8월 개시한 '미국·대만 무역협정(Initiative on 21st Century Trade)' 협상 결과 공개
 - * 동 협정은 미국-대만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미국 재대만협회(AIT : American Institute in Taiwan)와 주미국 타이베이 경제문화 대표처(TECRO : Taipei Economic and Cultural Representative Office) 명의로 수 주 내 조인 예정
 - 이번 협상 결과는 비교적 논란의 소지가 적은 △세관 행정 및 무역 간소화, △규제 관행, △서비스 규제, △반부패, △중소기업 조항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농업·디지털 교역·노동·비시장경제 등 쟁점 조항은 추가 협상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세관 행정 및 무역 간소화) 양자 간 무역 거래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전자 통관관세 시스템 구축, 물류 시설 내 탄소 저감 지원 등
 - (규제 관행) 중소기업의 시장 규제 절차 이해를 돕기 위한 투명성 도구-메커니즘 개선 노력, 소관 위원회 설립, 규제 협력 관리 등
 - (서비스 규제) 서비스 공급기업의 상호 시장 진출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원활한 정보 공유 보장
 - (반부패) 양측이 뇌물 수수 및 기타 형태의 부패를 방지하고 퇴치할 포괄적인 반부패 조치 수립에 합의
 - (중소기업) 무역 교육금융, 사절단, 자본 및 신용에 대한 상호 접근 개선을 포함해 중소기업의 무역 및 상호 투자 기회 증진
- 출처: USTR 성명(23.05.18), 인사이트트레이드(23.05.19)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

■ [의약품, 유럽] 유럽 제약업계, 대만 사태 악화 시 의약품·원료 수급 심각한 차질 우려

- 유럽 제약업계는 최근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태 악화 시 유럽 의약품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
 -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악화 시 대만 해협을 통한 의약품 운송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중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체재가 확보되지 않으면 유럽 의약품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고 언급
- 특히 유럽 제약업계의 글로벌 원료의약품(API)* 생산 점유율은 2000년 대비 절반(50%→25%)으로 축소되었으며 유럽은 현재 중국인도로부터의 수입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음

*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 : 합성, 발효, 추출 등에 의해 제조된 물질로 완제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 유럽 정밀화학업계에 따르면 **유럽의 의약 원료 아시아 의존도는 75%**에 육박하며 대아시아 수입 중 **중국의 비중은 70%**에 달함
 - 중국은 느슨한 환경규제, 저렴한 인건비 및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항생제, 페니실린 원료, 혈압약, 진통제 등 주요 의약품 시장을 주도**해옴
- 제약업 분야에서도 **역내 생산 확대 및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출처: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23.05.25)

■ [전기차, EU] '24년부 EU-영국 간 전기차 교역 시 추가 관세 부가 우려

- EU-영국 무역협력협정(TCA)에 따라 '24년부터 원산지 요건 강화로 영국의 對EU 자동차 수출 영향 전망
- '24년부터 영국에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전기차 부품의 45%, 배터리팩의 60%를 EU 또는 영국에서 조달해야 관세 면제가 가능하며, 해당 요건은 '27년부터 부품 55%, 배터리팩 65%로 단계적 상향 조정 예정
- 업체별 영향은 상이할 전망이나, 스텔란티스(Stellantis)는 중국산 배터리 사용으로 원산지 요건 미충족 가능성이 높음
- 스텔란티스는 중국산 CATL 배터리를 사용하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공급난으로 영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워 EU와의 무역협정을 개정하지 않으면 영국 내 전기차 사업을 철수하겠다"며 영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음
- Nissan의 경우 배터리 기업 Envision과 영국에 공장 건설 중이며, BMW는 독일에서 수입한 배터리를 사용 중
- TCA 협정에 따르면, EU와 영국의 합의가 있을 경우 별도 비준 없이 원산지 규정 변경이 가능하므로, 향후 집행위의 원산지 요건 강화 연기 여부에 이목 집중

출처: 이데일리(23.05.18) 등 언론보도 KOTRA 브뤼셀무역관 종합

■ [친환경, EU] EU 8개 회원국,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Euro 7' 반대

- 8개 EU 회원국(체코, 불가리아,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은 EU 집행위와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Euro 7' 기준에 반대하며 철회 촉구
- 현재 EU는 배출가스 기준으로 'Euro 6'를 적용하고 있으나, EU 집행위는 '25.7월부 한층 강화된 'Euro 7*' 도입 추진
- * Euro 7은 유종과 무관하게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60mg/km 이하로 줄여야 하고, Euro 6 규제에는 없었던 브레이크 입자 배출, 타이어 미세플라스틱, 암모니아, 아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등 기준 강화 또는 추가
- EU가 '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에 합의함에 따라 탄소 중립 전환에 필요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새로운 배기가스 기준인 'Euro 7'의 도입은 매우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
- EU 집행위는 Euro 7 도입 시 자동차 및 소형 밴·화물차의 경우 180~450유로(약 26~64만 원), 대형트럭과 버스 등은 2,800유로(약 400만 원)의 추가 생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
- 특히, 법안 가운데 7개 분야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고, 집행위가 제안한 Euro 7 기준의 적용 시기도 자동차 '25년, 트럭 27년에서 각각 3년, 5년간 추가 연기할 것을 촉구

출처: YTN(23.05.25), 오토타임즈(23.05.29)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

■ [반도체, 일본] 日 '실리콘 아일랜드' 규슈, TSMC 유치로 부활 움직임

- 日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으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를 유치했으며, JASM(TSMC·소니·덴소 3사 합작)은 구마모토현 기쿠요초의 공업단지에 신공장 건설* 공사 진행 중
 - * (부지면적) 23만 제곱미터 / (건설일정) '22년 봄 착공 → '23년 하반기 완공 목표 → '24.12월 출하 개시 계획 (생산품목)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이미지 센서용 로직반도체
- TSMC 구마모토 진출을 기폭제로 규슈 각지에서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어, '실리콘 아일랜드'의 부활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중
 - '21.11월~'23.3월 기간 내 규슈 지역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 예정 계획*은 총 57건으로 1조 8,400억 엔(약 17.3조 원) 규모
 - * JASM, 미쓰비시전기, 소니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롬 아폴로, 교세라, 도쿄일렉트론규슈, 타이요닛산 등 신규투자 예정
- '22년~'31년 기간 내 TSMC가 진출한 구마모토현의 교통 인프라 정비·인재 양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4조 3천억 엔(약 40.5조 원) 규모 전망

★TIP★ 실리콘 아일랜드란?

- 일본 4대 섬 중 가장 남쪽에 있는 섬인 '규슈'의 별칭으로, 반도체 원료인 '실리콘'으로부터 '실리콘 아일랜드'라는 명칭 탄생
- '80년대 일본이 반도체 산업을 석권하던 시절 규슈지역에서 전 세계 반도체의 10%가 생산되었으나, 美-日 반도체 협정에 따른 무역규제 등 이후 일본의 기세는 무너지고, '01년 IT불황, '08년 리먼쇼크를 겪으며 반도체 공장의 폐쇄가 잇따름

출처: KOTRA 도쿄무역관 종합

■ [물류, 세계] 파나마 운하, 가뭄으로 인해 선박 화물량 제한

- 가뭄으로 인해 세계 교역량의 4%가 거쳐가는 파나마 운하 운영에 차질이 빚어져 파나마운하청(ACP)은 선박 화물량을 제한하고 있음
 - 파나마운하청은 지난 4년이 1950년 이후 가장 건조한 시기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며 파나마 운하 수로 인근 2~4월 강우량은 평년의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지난 5.19일(현지시간) 파나마운하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따르면 5.24일부터 파나마 운하 네오파나막스 화물 선박*의 최대 흘수**는 13.56m(44.5피트)로 정해졌으며, 이는 현재 13.72m(45.0피트)보다 0.16m(0.5피트) 제한된 수치
 - * 네오파나막스 화물 선박 : '16년 6월 파나마운하 확장 후 통과할 수 있는 선박
 - ** 흘수 : 물속에 잠긴 선체 깊이로, '16년 운하 개통 이후 가장 낮았던 최대 허용 흘수는 '19년의 13.11m(43.0피트)
 - 파나마운하청은 향후 몇 주간 가뭄 호수*의 수위가 더 낮아질 수 있다며 5.30일부터 13.41m(44.0피트)로 제한폭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 * 가뭄 호수 : 파나마 운하를 구성하는 호수로 선박 흘수 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 이에 따라 화물업계에서는 컨테이너 선적량을 줄이거나 화물 운송 비용을 인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출처: 연합뉴스(23.05.20) 등 언론보도 한국무역협회 종합

○ 공급망 뉴스 더하기 : 핵심광물 리튬 확보를 위한 각국의 노력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로, 최근 전기자동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車배터리 핵심광물인 리튬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 리튬 채굴 세계 1위 호주, 정제산업 육성 추진

- 호주의 리튬 매장량은 칠레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으나, 생산비용·환경규제 문제로 호주에서 채굴되는 리튬 중 약 90%가 원석 형태로 수출되어 중국에서 가공되고 있어 對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제산업 육성을 추진
 - 호주에서 배터리 양극재 등에 쓰이는 수산화리튬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은 두 곳에 불과하고, 전기자동차·태양광 산업 성장으로 리튬의 가치가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리튬 정제산업 육성을 본격화
- 호주 리튬 채굴업체 필바라미네랄스, 미네랄리소시스는 리튬 제조·정제 시설 건설 추진
 - 5.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호주 최대 리튬 채굴업체인 필바라미네랄스는 스포듀민(리튬을 함유한 원석)을 인산리튬염으로 정제하기 위한 투자 금액 7천만 호주달러(약 610억 원) 규모의 공장 설립 추진
 - 호주 채굴업체 미네랄리소시스는 美 광물회사 엘버말과 함께 세계 최대 수산화리튬 제조 시설을 짓고 있음
- 호주는 리튬 등 핵심 광물 산업 육성을 위한 20억 호주달러(약 1조 7,400억 원) 규모의 기금 운영을 통해 현재 1% 미만인 리튬 정제산업 내 점유율을 '27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목표 제시

■ 美, 리튬 매장지 매입·다수 리튬 공급 계약 체결

- 5.21일(현지시간) WSJ 보도에 따르면, 美 최대 석유기업인 엑슨모빌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생산을 위해 美 아칸소주(州) 남부에 위치한 12만 에이커(약 485km²) 규모의 리튬 매장지를 갈바닉 에너지(Galvanic)로부터 매입하여 리튬 채굴 예정
 - 갈바닉 에너지가 외부 컨설턴트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美 아칸소주(州)에는 약 5천만 대의 전기차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400만 톤의 탄산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 美 포드 자동차는 배터리 핵심 광물인 리튬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약 5개의 리튬 공급 계약 체결
 - (엘버말)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26년~'30년까지 포드에 배터리 등급의 수산화리튬 10Mt(미터톤) 공급 계약 체결
 - (SQM) 배터리 등급의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을 장기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전략적 합의 체결
 - (캐나다 네마스카리튬) 향후 11년간 연 최대 1만 3천 톤의 수산화리튬을 공급하는 계약 체결
 - (컴퍼스미네랄) '25년부터 포드에 美 유타주 오그덴의 새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할 배터리 등급 탄산리튬을 최대 40% 공급하는 구속력 있는 다년 계약 체결
 - (에너지소스미네랄) 美 캘리포니아주 임페리얼밸리에서 생산할 수산화리튬 공급 예정

■ 中, 개발도상국 리튬 광산에 5조 원 투자

- 5.24일(현지시간) WSJ은 에너지 정보업체 라이스태드와 벤치마크 자료를 인용해 최근 중국이 2년 새 남미·아프리카 지역에서 총 20개 광산 지분 확보에 45억 달러(약 6조 원)를 투자했다고 보도
 - '25년 중국이 전 세계 리튬 생산량의 1/3을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리튬 광산을 보유한 개도국의 정세불안과 자원민족주의 강화 추세로 中 자원 확보 전략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제기

◎ 공급망 돌보기 ① : 쉽게 이해하는 독일 공급망 실사법 FAQ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환경 등 관련 위험을 예방·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을 실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독일뿐만 아니라 EU 각국에서도 비슷한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

■ 독일 공급망 실사법의 주요 사항

- (공식 명칭) [독문]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LkSG) /
[영문] Act on Corporate Due Diligence Obligations in Supply Chains
- (시행일) '23.1.1일부터
- (적용 대상) ('23년~) 고용인원 3,000명 이상인 기업 / ('24년~) 고용인원 1,000명 이상인 기업
- (주요 사항) ①기업 실사에 대한 명확한 요구 사항 최초 포함, ②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 의식, ③감독 기관에 의한 외부 모니터링, ④인권 보호 강화, ⑤사람/환경 유해물질 사용 규제
- (위반 시 과태료) 연 매출*이 4억 유로(약 5,660억 원)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연평균 매출의 최대 2%
 - * 기존 3개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 기준

■ 독일 공급망 실사법 관련 FAQ

Q1. 공급망 실사법의 도입 배경은 무엇인가요?

A1. '16년 독일 연방정부는 UN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과 인권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이자 공급망 실사법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계획인 NAP*를 채택하였으나, NAP에 의거한 '20년 모니터링 결과 기업의 자발적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인권 상황 개선과 환경보호 관련 의무사항을 법제화한 공급망 실사법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정당 간 합의 도출 후 '21.7.16일 최종 절차를 거쳐 공급망에 대한 기업의 실사 의무를 담고 있는 공급망 실사법이 '23.1.1일부 발효되었습니다.

* NAP : National Action Plan - Implementation of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Q2. 공급망 실사법이란 무엇인가요?

A2. 공급망 실사법은 독일 내 고용인원 3,000명 이상인 기업(23년 기준)을 대상으로 공급망 내 환경·인권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 법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크게 ① 인권 강화, ② 환경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독일 최초로 공급망 내 기업 실사 의무에 대한 명확한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Q3. 공급망 실사법의 핵심 사항은 무엇인가요?

A3. 1. 전체 공급망에 대한 책임 의식

- 공급망 실사법의 적용 범위는 전체 공급망입니다. 이는 원자재 추출부터 최종 고객에게 배송까지,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독일 및 해외의 전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리스크 관리 의무는 ① 기업의 자체 사업 영역, ② 직접 공급업체, ③ 간접 공급업체까지 해당됩니다.

2. 감독 기관에 의한 외부 모니터링

- 감독 기관인 독일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은 기업의 법률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기업의 연차보고서를 확인하고, 접수된 불만 사항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BAFA는 특정국 등 인권·환경 침해 리스크가 높은 위험국가 분류를 위해 독일 외무부와 긴밀히 협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피해자의 인권 강화

- 인권 침해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독일 법원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충 사항을 감독 기관인 독일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 노동조합 및 비정부기구는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4. 대상 기업은 어떠한 실사 의무를 준수해야 하나요?

- A4. 대상 기업은 공급망에서 인권 및 환경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실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①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② 기업 내 공급망 관리 담당자 지정, ③ 리스크 분석, ④ 정책 강력 채택, ⑤ 예방조치 도입, ⑥ 시정조치, ⑦ 고발절차 구축, ⑧ 문서화 및 보고

Q5. 공급망 실사법에서 명시하는 인권 및 환경의 위반 사항은 무엇인가요?

A5. 1. 인권 관련 위험 및 의무 위반

- ① 아동노동, ② 강제노동, ③ 노예제, ④ 작업장 안전 및 건강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은 노동, ⑤ 저임금 노동, ⑥ 인간건강에 해를 미치는 토양·수질·공기 오염·소음, ⑦ 불법퇴거·불법점유, ⑧ 인종·사회적 지위·성별 등에 의한 차별 등 11가지

2. 환경 관련 위험 및 의무 위반

- ① 수은함유 제품 생산 및 생산과정에서의 수은 및 수은 화합물 사용, 수은 폐기물처리(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 ②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상 생산물 및 화학물질의 사용
- ③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교역 규제에 관한 바젤협약상 유해폐기물의 수출입 등

Q6. EU 공급망 실사 지침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 A6. '22.2월 EU 집행위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을 발표했습니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이 발효될 경우, EU 지침이 적용 우려에 있습니다. 다만 EU 지침은 실사 의무 및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하며, 각 회원국 국내법은 그 이상의 수준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 지침이 직접적으로 기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전환한 국내법이 해당 기업에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Q7. 기업의 보고의무 및 연차보고서 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A7. 기업은 자체 사업 영역과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인권과 환경침해 리스크에 대한 실사와 관련하여 연 1회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즉, 기업은 연 1회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내 독일어로 작성한 연차보고서를 감독 기관인 독일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연차보고서를 7년 동안 기업 웹사이트에 무료로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Q8. 우리 기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A8. 한국은 상대적으로 인권·환경분야 리스크가 높지 않아 우리기업에 대한 독일 공급망 실사법의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추후 인권·환경 관련 의무 준수가 독일 기업에 대한 공급업체로서 갖춰야 할 주요 조건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공급망 돌보기 ② : G7 공동선언문 속 용어 '경제적 강압'과 '대응 원칙'

5.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제49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경제안보와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공동선언문의 내용 중 생소한 용어인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과 이에 대한 '대응 원칙'에 대해 알아보자

■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

- 공동성명서에서 경제적 강압 개념*을 명시하고, 경제 자원의 무기화 방지를 위해 탈위험화·공동대응을 강조
 - * 경제적 조치로 타국의 정치적 양보를 강요하는 행위(공식 정의된 개념은 아니나, 공동선언문 및 美EU 문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
- 공동선언서에 中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中 비시장적 조치를 겨냥
 - * APF통신, 英FT 등 주요외신은 관계자를 인용하며, 中 겨냥 표현이라고 보도
- 경제적 수단에는 수입·수출규제, 행정규제, 출입국제한, 2차제재 등 포함

■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 원칙

| 탈위험화 원칙(De-risking) | 공동대응 원칙(Collective Action) |
|---|--|
| <p>① 개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강압, 군사전용 위험이 높은 산업 분야는 보호하고, 그 외 영역*은 對中 파트너십 유지** * 구체적 언급은 없으나, 범용품미드테크 위주 교역 예상 ** '23.3월 EU집행위원장 Ursula에 의해 처음 제시 - 경제적 강압 대응과 국가 안전보장으로 구분 <p>② 경제적 강압 대응(수입의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분야에서의 경제적 강압 가능성 제거 목적 - 경제적 강압의 원천인 수입의존도를 완화 * (日사례) 센카쿠 분쟁 이후, 호주 등으로 수입처 다변화하고, 중회토류 절감기술 등 개발 <p>③ 국가 안전보장(기술유출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전용 위험*이 있는 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 美는 이중용도(Dual-use), EU는 민감기술(Sensitive-tech) - 원자력, 우주, 양자컴퓨팅, AI 등 첨단 군사기술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분야에서의 해외투자 제한 * (日사례) '23년 「경제안보추진법」을 발표하여, 유출시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유출금지 기술 23개 공개 | <p>① 개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대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우호국간 협력 * "build and strengthen resilient supply-chain networks among trusted partner" - G7 통상장관 회담 - 경제적 수단*을 무력화하거나, 정치적 양보**를 저지 * 대중의존도 완화 위해 우호국으로 수입처·생산기지 이전 ** 가해국을 국제적으로 규탄하여 정치적 명분 상실 유도 <p>② 경제적 강압 공동대응 플랫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강압에 대한 공동 평가·대비·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플랫폼 신설 명문화 * G7은 우호국 간 협력과 공동대응이 근본적이고 장기적 해결책이라는 점에 합의 - 구체적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실무단계 합의 <p>③ 법제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The Countering Economic Coercion Act」 * 경제적 강압 피해국 손해전보를 위한 수입관세 인하 경제적 강압 가해국에 대한 수입관세 인상 - (EU) 「Anti-Coercion Instrument Act」 * EU 회원국에 대한 제3국의 경제적 강압 발생 시, 저지하기 위한 수단들 현재 논의 중 |

■ 대응 원칙에 대한 중국의 입장

- 이번 G7의 경제적 강압 및 탈위험화에 대한 논의는 美가 주도한 경제적 왕따(Economic Bullying)라고 비판
- G7 정상회담 직후, 美 마이크론社에 대한 구매금지령 발표로 보복, 중앙아시아 5개국과 정상회담

◎ 공급망 전문가: EU 주요국의 배터리 기업 유치전략과 글로벌 기업의 EU 진출현황

- 김희영·김경훈(2023.5.15), 「글로벌 배터리의 최대 격전지 EU 배터리 시장 동향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보고서 요약

독일, 헝가리, 폴란드, 스웨덴 등 EU의 주요 회원국은 자국 내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글로벌 배터리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에는 많은 배터리 제조 기업들이 진출해 있거나 공장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EU의 배터리 기업 유치전략과 진출현황을 살펴보자.

| 〈EU 배터리 시장 시리즈〉 | |
|-----------------|-------------|
| (59호) | 시장현황과 관련 정책 |
| (60호) | 기업 유치전략과 현황 |
| (61호) | 우리 기업의 경쟁력 |

■ 배터리 투자 유치를 위한 EU 주요 회원국별 강점과 우대정책

(1) 독일 : EU 내 전기차 제조사와의 접근이 용이 *독일의 EU 내 OEM 점유율 55%

- (담당기관)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 (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Climate Action, BMMK)

- (주요정책)

- [자금지원] 총 30억 유로 상당의 R&D 프로젝트 지원금 제공 (지속가능한 생산 공정, 차세대 배터리 개발 분야 등)
- [프로젝트] IPCEI 프로젝트 중 14개에 참여하는 등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
- [네트워킹] Battery Innovation Day 2022 컨퍼런스 등 배터리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킹 환경 조성

(2) 헝가리 : EU에서 가장 낮은 법인세 *헝가리 법인세(9%) vs EU 평균 법인세(21.5%)

- (담당기관) 헝가리 투자청 (Hungarian Investment Promotion Agency, HIPA)

- (주요정책)

- [자금지원] R&D, 생산시설 설립 등 투자금의 약 15%, 지역별로 0-50%제공, 인력 훈련비의 최대 50% 지원
- [세금지원] 개발 및 R&D 비용 세금 감면 혜택 (80-100%)

(3) 폴란드 : 젊고 숙련된 인력 보유 *폴란드 전체인구 대비 25세 미만 인구의 비중은 약 25%

- (담당기관) 폴란드 투자무역청 (Polish Investment and Trade Agency, PAIH)

- (주요정책)

- [자금지원] 특정 조건 충족 시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20% 지원금 제공
 - * (양적 조건) 프로젝트 가치 1억 6천만 즈위티 이상, 1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 * (질적 조건) 사회적 책임 이행,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 등
- [세금지원] 폴란드 투자 구역(PSI) 법인세 감면 (구역별로 10-50%),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20% 추가 감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세 일부 면제(지역 의회의 결정)

(4) 스웨덴 :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EU내 최저 전력가격, 환경규제에 유리

* 스웨덴 내 전력가격은 €0.056/kWh('17-'21)이며 스웨덴 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97%

- (담당기관) 스웨덴 투자 진흥 기관 Business Sweden

- (주요정책)

- [자금지원] 지역개발구역(RDA) 내 건물, 장비, 인건비 등의 투자 비용에 대해 지원금 제공(10-40%)
 - * (조건) 사전신청必, 승인 후 3년 내 투자 과정 마무리
- [운송비지원] 스웨덴 북부 내 운송 비용 지원 (지역별 10-45%, 한 해 최대 1,500만 유로)
 - * (대상 조건) Norrbotten, Västerbotten, Jämtland, Västernorrland 지역에서 일정 부분 이상 공정 과정을 거친 품목, 401km 이상의 운송 거리에 한함

■ 현재 폴란드, 헝가리, 스웨덴, 독일에 주요 배터리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30년까지 계획된 배터리 셀 생산 프로젝트는 독일, 헝가리,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순으로 많음

〈2030년까지 계획된 EU 주요국의 배터리 셀 생산 신규 프로젝트 계획〉

| 소재국 | 생산규모(GWh) | 기업명(생산규모) |
|---------|-----------|---|
| · 독일 | · 551.7 | · Leclanche(0.4), TerraE(6), BMZ(15), Magnis Win(30), Cellforce(0.1), Tesvolt(4), SVOLT(56), Northvolt(68), Tesla(200), PowerCo(32), CATL(100), ACC(40.2) |
| · 헝가리 | · 186 | · CATL(100), 삼성SDI(10), SK온(76) |
| · 스웨덴 | · 135 | · NEVS(25), Northvolt(44), 볼보(50) |
| · 스페인 | · 128 | · Envision AESC(60), Phi4tech(18), Volkswagen(40), Basquevolt(10) |
| · 프랑스 | · 114.4 | · ACC(40.2), Verkor(50.2), Envision AESC(24) |
| · 이탈리아 | · 77.7 | · Italtvolt(30), Faam(7.5), ACC(40.2) |
| · 폴란드 | · 47 | · LG에너지솔루션(45), Durapower(2) |
| · 포르투갈 | · 45 | · CALB(45) |
| · 슬로바키아 | · 32 | · InoBat(32) |

〈EU 주요국별 주요 배터리 셀 기업 진출 현황〉

| 소재국 | 생산규모(GWh) | 기업명(생산규모) |
|--------|-----------|---|
| · 폴란드 | · 70 | · LG에너지솔루션(70) |
| · 헝가리 | · 37.5 | · SK온(7.5), 삼성SDI(30) |
| · 스웨덴 | · 16.35 | · Northvolt(16.35) |
| · 독일 | · 15.37 | · BMZ(15), Liacon(0.3), Leclanche(0.07) |
| · 프랑스 | · 5 | · ACC(2), Blue Solutions(3), |
| · 체코 | · 1.2 | · Magna Energy Storage(1.2) |
| · 이탈리아 | · 0.33 | · Faam(0.33) |
| · 핀란드 | · 0.1 | · European Batteries Oy(0.1) |

■ 이외에도 EU는 IPCEI(유럽 공동이익에 관한 주요 프로젝트)*를 통해 다수의 배터리 기업을 지원하고 있어 EU내 배터리 산업은 앞으로도 지속 성장할 것

* 광물 및 소재 분야, 배터리 제조 분야, 배터리 시스템 분야, 배터리 재활용 분야별로 대상을 선정해 지원

○ 공급망 소식통 : 인도·태평양 전략지역 비즈니스 웨비나

- ▶ 행사명 : 인도·태평양 전략지역 비즈니스 웨비나
- ▶ 일시 : '23.6.7(수)~6.9(금), 14:00~16:00
- ▶ 장소 : 온라인(유튜브, KOTRA 비즈니스 채널)
- ▶ 주최 : KOTRA

■ '인도·태평양 전략지역 비즈니스 웨비나'란?

- '인도·태평양 전략지역 비즈니스 웨비나'란 인도·태평양 전략지역 기진출 및 진출 관심기업에 현장 비즈니스 정보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웨비나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련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 현지 정부 대응 전략과 '23년 현지 소비시장 트렌드 등 현지에서 전하는 생생한 비즈니스 현장 정보에 관심있는 국내기업을 모집합니다.

■ 프로그램

| 일자/국가 | 시간(한국기준) | 내용 | 연사 |
|----------------|-----------------|-----------------------------|---|
| 6.7(수) / 베트남 | 14:05~14:45(40) | ▶ 베트남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전략 | Institute for Southeast Asian Studies PhD. Truong Quang Hoan |
| | 14:45~15:25(40) | ▶ 포스트 코로나 베트남 소비자 트렌드 | NICE Retail Vietnam 유명국 법인장 |
| | 15:25~15:50(25) | ▶ 베트남 관세 주요 이슈/애로사항 및 대응방안 | KOTRA 하노이 무역관 박민설 관세사 |
| 6.8(목) / 인도네시아 | 14:05~14:25(20) | ▶ 한-인니 통상환경 및 주요 제도 안내 | Prime Expert Trade Analyst Mr. Ir. Marthin, MA |
| | 14:25~14:45(20) | ▶ '23년 인도네시아 이커머스 및 소비자 트렌드 | istyle.id 유승현 CCO |
| | 14:45~15:05(20) | ▶ 인도네시아 지적재산권 제도 살펴보기 | 법무법인 K&K Ms. Risti 변호사 |
| 6.9(금) / 인도 | 14:05~14:35(30) |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인도의 전략 | KOTRA 인도비즈니스협력센터 이정선 운영팀장 |
| | 14:35~15:05(30) | ▶ 14억 인구대국 인도 소비시장 트렌드 | KOTRA 뉴델리무역관 한송옥 과장 |
| | 15:05~15:40(35) | ▶ 인도 합작투자 시 지재권 관련 유의사항 | 이진 법률전문가 |

■ 웨비나 신청·참가방법

- 신청기한 : ~'23.6.6(화)
- 참가신청 : 우측 QR코드 스캔 
- 참가방법 : 신청 이메일로 제공된 웹주소로 당일 접속
- 문의처 : KOTRA 경제협력지원팀(☎ 02-3460-7668 / diplomacy2@kotra.or.kr)

○ 공급망 소식통 : 한국무역협회 지원사업 소개

■ 한-아제르바이잔 경제협력포럼(6.7)

- ▶ 일시/장소 : 2023년 6월 7일(수) 14:00~16:30,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층 오키드룸
- ▶ 신청기한 : 2023년 6월 5일(월) 16시 (선착순)
- ▶ 주 최 : 한국무역협회, 아제르바이잔 수출투자진흥청(AZPROMO)
- ▶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실 (☎ 02-6000-5082, 02-6000-5542)

- 프로그램

| 시간 | 세부내용 | 연사 |
|-------------|----------------------------------|--------------------------------|
| 13:30~14:00 | 등록 | |
| 14:00~14:10 | 개회사 | 한국무역협회, 아제르바이잔 수출투자진흥청 |
| 14:10~14:30 | 기조연설 | 아제르바이잔 디지털개발교통부 사미르 맘마도프 차관 |
| 14:30~15:00 | [세션1] 아제르바이잔 비즈니스 환경 및 투자 기회 | 아제르바이잔 측 발표자(TBD) |
| 15:00~15:30 | [세션2]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개발 프로젝트 현재와 미래 | 아제르바이잔 측 발표자(TBD) |
| 15:30~16:30 |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 | |

* 한-영 동시통역 제공

■ 국제 경제안보·탄소중립과 비즈니스 대전환 컨퍼런스(6.9)

- ▶ 개 요 : 주요국의 경제안보정책과 탄소중립 비즈니스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모색
- ▶ 일시/장소 : 2023년 6월 9일(금) 14:00~16:10,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 ▶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실 (☎ 02-6000-5549)

- 프로그램

| 시간 | 세부내용 | 연사 |
|-------------|--------------------------------------|---|
| 14:00~14:03 | 개회사 | 무역협회 |
| 14:10~14:40 | 미국의 경제안보·친환경 전환 정책 동향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Barbara Weisel - Managing Director at Rck Creek Global Advisors, - 前 USTR TPP 협상 미국측 수석대표 |
| 14:40~15:10 | EU의 탄소중립 미래비전과 추진동향 | Andrei Marcu - Founder & Executive Director at ERCST (유럽기후변화·지속가능전환협의회) |
| 15:10~15:40 | 주요국의 경제안보·친환경 전환 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 | 유명희 - 前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
| 15:40~16:10 | 주요 산업별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 패널토론 (좌장 : 유명희 본부장) - 삼성전자, 포스코경영연구원, 고려아연 등 기업인 3~4인 |

글로벌 경제지표(23. 5. 31. 수)

[환율]

| | '21말 | '22말 | '23.4말 | 5/26 | 5/30 | 5/31 | 전일비 | 22말비 |
|---------------|----------|----------|----------|----------|----------|----------|-------|------|
| ₩/U\$ | 1,186.30 | 1,188.80 | 1,202.30 | 1,324.50 | 1,324.90 | 1,327.20 | 0.17 | 4.96 |
| 선물환(NDF, 1월물) | 1,186.30 | 1,190.00 | 1,203.20 | 1,322.70 | 1,323.20 | 1,323.10 | △0.01 | 4.57 |
| ₩/CNY | 166.04 | 186.51 | 190.52 | 186.93 | 187.25 | 186.31 | △0.50 | 2.68 |
| ₩/¥100 | 1,051.19 | 1,032.48 | 1,040.86 | 948.24 | 940.38 | 951.13 | 1.14 | 0.59 |
| Y/U\$ | 103.34 | 115.14 | 115.51 | 139.68 | 140.89 | 139.54 | △0.96 | 4.34 |
| U\$/EUR | 1.2279 | 1.1318 | 1.1165 | 1.0733 | 1.0687 | 1.0684 | △0.03 | 0.63 |
| CNY/U\$ | 6.5305 | 6.3681 | 6.3105 | 7.0535 | 7.0953 | 7.0991 | 0.05 | 1.95 |

* '22년 평균 환율: (₩/U\$) 1292.2원, (₩/¥100) 983.8원, '23년 평균 환율('23.1.1~현재): (₩/U\$) 1295.6 (₩/¥100) 970.5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 구분 | '22년 최저(해당일) | '22.12.31 | '23.5.29(전일) (비철금속은 5.26일) | '23.5.30 | 전일비 | '22년최저비 | '22년말비 | |
|---------|---------------|-----------------|-------------------------------|-----------|---------------|-----------------|-----------------|-------------------|
| 원유(두바이) | 71.83(12.12일) | 78.77 | 76.23 | 74.95 | △1.3 △1.7% | 3.1 4.3% | △3.8 △4.8% | |
| 철광석 | 79.50(10.31일) | 117.35 | 104.45 | 102.65 | △1.8 △1.7% | 23.2 29.1% | △14.7 △12.5% | |
| 비철금속 | 구리 | 7,000.00(7.15일) | 8,387.00 | 8,082.00 | 8,122.00 | 40.0 0.5% | 1122.0 16.0% | △265.0 △3.2% |
| | 알루미늄 | 2,080.00(9.28일) | 2,360.50 | 2,242.00 | 2,230.00 | △12.0 △0.5% | 150.0 7.2% | △130.5 △5.5% |
| | 니켈 | 19,100.00(7.5일) | 30,425.00 | 21,450.00 | 21,235.00 | △215.0 △1.0% | 2135.0 11.2% | △9190.0 △30.2% |

[반도체]

| | '21 | '22 | '23.2월 | '23.3월 | '23.4월 | 5/26 | 5/29 | 5/30 | 5월(~30) |
|------------------------|------|-------|--------|--------|--------|-------|-------|-------|---------|
|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 3.99 | 3.07 | 1.83 | 1.63 | 1.71 | 1.53 | 1.53 | 1.53 | 1.58 |
| (%, YoY) | 29.9 | △23.0 | △52.9 | △54.8 | △55.5 | △55.4 | △55.4 | △55.5 | 53.9 |
|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 6.55 | 7.25 | 6.46 | 6.42 | 6.40 | 6.37 | 6.35 | 6.35 | 6.39 |
| (%, YoY) | 14.7 | 10.7 | △15.5 | △18.7 | △20.9 | △22.8 | △23.0 | △22.9 | △22.6 |

[SCFI(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 구분 | '21.12.31 | '22.12.30 | '23.5.5 | 5.12 | 5.19 | 5.26 | 전주비(5.19) | '22년말비 |
|------|-----------|-----------|---------|---------|--------|--------|-----------|--------|
| SCFI | 5046.66 | 1107.55 | 998.29 | 983.241 | 972.45 | 983.46 | 1.1% | △11.2% |

[BDI(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 구분 | '21.12.24 | '22.12.23 | '23.5.12 | 5.19 | 5.22 | 5.26 | 5.30 | 전일비(5.26) | '22년말비 |
|-----|-----------|-----------|----------|------|------|------|------|-----------|--------|
| BDI | 2217 | 1515 | 1558 | 1384 | 1365 | 1172 | 1123 | △4.2% | △25.9% |



뉴스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 | |
|---------------------------|--|
| 산업부 | 산업공급망정책과 |
| 한국무역협회(KITA) 공급망분석팀 | 김 경 훈 김 희 영 박 가 현 도 원 빈 최 수 빈 허 슬 비 |
|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 이 병 옥 신 재 훈 이 윤 지 정 다 건 정 유 진 |
|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미래전략연구팀 | 석 주 현 |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Value Chain]

문의

산업분석실 (한국무역협회) : gvc_research@kita.or.kr
공급망모니터링실 (KOTRA) : gvc_monitoring@kotra.or.kr

<구독>



※ 메일 구독(수신) 신청 :

<https://forms.gle/twC4m3uNTm14t2sR8>

<피드백>

※ 피드백하러 가기 :

<https://forms.gle/sftFKhLd4Xh49pxu9>



주관기관



협력기관

